

담양군, 향촌복지 모델 구축 군민 삶의 질 지수 높다

농어업위 평가 전남 1위 등극 경제 등 5개 영역 20개 지표 아동 정기 예방접종 강화 등 겨울 대표 산타축제 화합의 장

담양군이 지역 맞춤형 '향촌복지' 실현으로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 결과 전남 농어촌 가운데 군민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군은 1읍면 1축제 개최 등 군민 공감대 형성을 이뤘고 있어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

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문화공동체 분야 12위로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8위, 전남 1위로 선정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담양군은 새로운 효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 모델을 구축,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과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

한 가정에 방문해 건강 상담과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우리마을 주치의'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한 병원 동행, 퇴원환자 돌봄 사업 등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조기 검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및 12세 이하 아동 정기 예방접종 강화 등 누구나 행복한 '담양형 향촌복지'를 통해 농촌지역 대표 복지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담양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공간을 문화거점시설로 재조성해 예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지역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 향유 갈증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에 관광문화축제로 선정된 담양의 대나무축제, 겨울 대표축

제인 산타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특색있는 야간 콘텐츠를 채워 넣어 온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무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무정면 은행나무축제, 가사문학면 찰옥수수 음악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등 향토 자원을 활용한 '1읍면 1축제'를 개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문화로 하나 되는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 신안군, 13-15일

신안군은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3일간 도초면 용향정(신안군 국공장)에서 '제5회 신안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안군 궁도협회가 주관하고, 신안군과 신안군체육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1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남녀 궁도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3일 실업부와 단체전을 시작으로 14일, 15일 개인전이 진행되며 3일간 850여명의 전국 명궁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그동안 신안군 궁도협회는 2023년 전라남도체육대회 우승을 비롯해 전국 규모 궁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는 등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농작물 73개 품목 대상

해남군은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벼 등 7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정책보험으로 가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10%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관내 4592농가, 6067ha 면적에 대해 162억여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율도 매년 늘어 올해 해남군의 가입면적은 1만 6149ha로 전년대비 157ha 증가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가지 병해충 피해와 벼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여름철 수산물 합동 위생점검 영광군, 식중독 예방 나서

영광군은 여름철 기온·수온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팀 발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트 내 수산 코너 5곳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유통기준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상태, 비브리오팀 오염 방지를 위한 수족관 온도관리(15℃ 이하)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영광군은 9월까지 수산물 비브리오팀 발생과 식중독 증가로 인해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수산물 안전한 구매·섭취를 위해 소비자 및 영업자가 수산물 구입 시 5℃ 이하로 냉장 보관, 85℃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조리기구(칼, 도마 등)는 소독(열탕 처리 등)하고 전처리용과 헹감용으로 구분 사용,장갑 착용 준수 등을 당부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곡성군 석곡면 주민자치회들이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석곡면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곡성군은 석곡면 주민자치회가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주민들의 호응 속에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이 사업은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내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경제소득, 생활환경, 주민화합, 희망복지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분과는 야외 공간과 마을회관을 활용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실제 영화관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석곡면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월 50명의 위원으로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해 8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7월에는 제1회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 총회에서 주민투표 1위로 선정된 '폐비닐수거장 덮개 설치 사업'은 올해 실제로 추진되어 폐비닐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고 마을 미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경환 석곡면 주민자치회장은 "현재까지 4개 마을 상영에 12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높다"며 "위원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 개장, 짜릿한 마술 공연도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이 13일 개장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공룡박물관 내에 위치한 물놀이 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수 있는 물놀이터와 함께 슬라이드, 바닥분수 등이 조성되어 여름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룡 물놀이 체험장은 유아와 어린이에 특화된 시설물로 13세 어린이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시설된 슬라이드 2종은 130cm 이상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을 상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유실, 샤워실, 2층 휴게공간 등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물놀이장은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 30분까지 정시마다 50분씩 운영한다. 개장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이다.

이번 개장 기간에는 특별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주말동안 물놀이장 밖 체험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플레이어론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화·수·목요일에는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워터볼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발굴체험, 쥐라기랜드 꾸미기,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

또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지하 거대공룡실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족들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시원한 물놀이, 즐거운 볼거리, 재미있는 즐길거리를 모두 갖춘 해남공룡박물관으로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광군, 비료 적정 시비 당부 벼 재배농가 대상

영광군이 질소질 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적정 시비를 홍보하고 있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질소질 비료는 일반적으로 모내기 전 밑거름, 모내기 12~14일 후 가지거름, 마지막으로 벼 이삭 패기 전 이삭거름 총 세 번의 시비가 필요하며, 시비 시기와 시비량에 따라 도복·수량·미질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량 감소를 우려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밥맛이 떨어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또한 감소한다. 여름철 장마, 태풍에 의한 도복과 각종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에 취약해진다.

질소질 비료 10a 당 9kg의 적정 시비는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무안군, 귀어창업 주택구입 지원 2차 사업대상자 모집

무안군은 8월9일까지 2024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차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수협융자 사업이다.

창업자금은 대상자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년간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4년 기준 만 65세이하 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